

손창섭의 『낙서족』론 - 1938년의 의미를 중심으로

유 서 현*

요약

등단 이래 주로 동시대 전후 한국 사회를 그렸던 손창섭은 1959년에 발표된 첫 장편소설 『낙서족』에서 1930년대 말이라는 과거로 눈을 돌린다. 이 글은 『낙서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손창섭이 이 시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탐구한 글이다. 먼저, 『낙서족』의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 강력한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독립운동가 아버지에 대한 주인공 박도현의 외경이라고 할 때, 이 아버지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김구와 이승만 등 이질적 요소의 이상주의적 결합으로 구성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명이 아버지가 상징하는 미분화된 이상은 민족의 단결이 가능했던 마지막 시기로서 1938년을 재현하는 동시에 주인공 도현의 미숙한 의식세계를 보여준다. 한편, 그간의 연구에서 『낙서족』의 모자 관계는 부자 관계에 비해 크게 주목되지 않았지만 기실 『낙서족』 서사의 큰 틀은 아버지-무장투쟁-중국으로의 길을 좇으려 하는 박도현이 어머니-실력양성-미국으로의 길로 인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박도현이 아버지를 떠올릴 때 일어나는 혈기가 일본인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불필요한 폭력으로 이어질 뿐이었다면, 어머니 인물들은 그를 부단히 회유하고 반성하게 하면서 그의 행로를 조정한다. 어머니들이 지향하는 실력양성론은 자본과 기독교적 지반에 의해 유지되는바, 여기에는 피치(Fitch) 가문을 비롯해 당시 실제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재중 미국인 선교사들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낙서족』은 박도현을 포함한 소년들이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끝맺어지는데, 이로부터 이 작품의 1938년은 엄혹한 현실로 진입함에 따라 종결되는 소년기의 끝이라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들은 조선의 희망찬 앞날을 꿈꾸며 떠나가지만, 독자들은 이들이 맞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할 암울한 미래를 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들을 통해 이미 보았다. 이들 소년은 손창섭의 소설에 빈번히 등장하는 지극히 권태로운 인간형의 전사(前史)이며, 『낙서족』의 1938년은 손창섭의 문학이 잃어버린 채로 출발했었던 생에 대한 어리석은 의욕이 가능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손창섭, 『낙서족』, 1930년대 말, 조선독립운동, 모자(母子)관계, 소년기

목차

1. 들어가며: 손창섭 문학 속 『낙서족』의 위치
2. 1930년대 말 운동가 아버지'들과 미분화된 이상
3. 1930년대 말 자본-이성-기독교라는 숨겨진 동력과 배후의 어머니들
4. 1930년대 말 소년기의 끝과 불가능한 여행의 시작
5. 나가며

1. 들어가며: 손창섭 문학 속 『낙서족』의 위치

손창섭(1922~2010)의 문학세계에서 『낙서족』(1959)¹⁾은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의 첫 번째 장편소설이라는 점, 1950년대가 아닌 식민지기를 다룬다는 점, 「신의 회작」(1961)과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작품을 전후 보편적 내면세계로부터 손창섭 개인의 자전적 탐색으로 읽게 만들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작품이 발표된 당대에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²⁾ 오늘날에는 손창섭의 문제작 가운데 하나 간주되고

1) 『낙서족』은 『사상계』 1959년 3월호에 전재(全載)되었고 같은 해 일신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상계』본을 참고했으며 인용 시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한다. 또한 장조는 모두 인용자의 것이다.

2) 『사상계』에 『낙서족』이 발표된 후 바로 다음 호에 실린 백철, 김우중, 유중호, 이어령, 김동리의 비평(『사상계』 1959.4)이 평단의 반응을 잘 보여준다. 가장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김우중은 조소와 경멸의 대상에 불과한 손창섭의 인물들은 결코 문학의 본령이 될 수 없다고 말

있다.

『낙서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몇 가지 큰 줄기를 중심으로 갈래지어볼 수 있다. 우선 손창섭의 다른 많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석학적 언어로 『낙서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주인공 박도현이 아버지의 법과 상징의 세계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이로 인해 도현이 타자와의 관계, 특히 상희나 노리코와 같은 여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는지에 주목한다.³⁾ 다음으로, 박도현의 아버지가 시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라는 특수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연구들은 박도현의 분투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이나⁴⁾ 제국 일본의 공안 질서 및 식민지 조선의 계몽 윤리에 대한 거부와 같은⁵⁾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박도현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지 못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하고 있고, 유종호는 그러한 인물형이 독특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한국 소설문학의 빈약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장편소설로서의 기능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백철은 여러 작중 사건이 인물들에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들면서 작가가 장편소설이라는 양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듯하다고 보았다. 이어령은 과도한 통속성만 경계한다면 손창섭이 새로운 장편문학세계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낙서족』 자체는 단편소설을 길이만 늘인 것처럼 읽힌다고 비판했다.

- 3) 강유경, 「손창섭 소설의 자아와 주체연구」,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병인적 요소 - 「생활적」, 「낙서족」, 「신의회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공종구, 「손창섭 소설의 기원」, 『현대소설연구』 4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양정임, 「손창섭 『落書族』의 ‘껍데기/알맹이’의 상징성 연구」,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2011; 박죽심, 「손창섭의 자전적 성격의 소설에 나타난 의미 고찰」, 『어문론집』 53, 중앙어문학회, 2013 등. 최근에는 상징적 진입에 실패했던 어린 손창섭이 기독교의 수용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원한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김진기, 「손창섭 소설의 수치심과 기독교」, 『어문론집』 91, 중앙어문학회, 2022).
- 4) 류동규, 「탈민족의 관점에서 본 『낙서족』」,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2007; 류동규, 「전후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그 재현」, 『현대소설연구』 4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 5) 김주리, 「손창섭 소설 속 의협과 폭력」,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는 점에서는 앞선 갈래의 연구들과 공통적이면서도, 이를 손창섭 개인이 아닌 세대적 문제로 확장해 논의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박도현의 청소년기가 시간적으로는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 긴 전쟁기에 걸쳐있고, 공간적으로는 조선 외부의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의 방랑으로 점철되어 있었기에 민족적 정체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손창섭의 자전적·세대론적 특성으로 지적한다.⁶⁾

이상의 연구들은 손창섭이라는 작가 개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마련해준 동시에 『낙서족』을 비롯한 그의 작품을 한국문학사에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중요한 결실을 맺어왔다. 다만 여기에는 여전히 보완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첫째, 『낙서족』을 식민지기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때, 선행연구들은 그러한 문제의식에 비해 실제로 『낙서족』이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시대에 대해 작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한 방법은 그 시대에 있었던 무수한 존재와 사건 중 작가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낙서족』에서도 손창섭은 일제 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자신의 작품을 접속시키는 몇 가지 요소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는바, 이를테면 1930년대 말 김구와 이승만의 최후의 협력이나 재중 미국인 선교사들의 조선독립운동에서의 역할 등은 실제 역사적 맥락을 섬세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 글은 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둘째, 그간의 연구는 『낙서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존재 및 아버지와 박도현의 관계를 중시한 나머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

6)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에 관한 일고찰 - 자전적 소설과 세대론의 관점에서」, 『한국현대문학연구』 13, 한국현대문학학회, 2003; 방민호, 「손창섭의 자전적 소설 연구 - 『비 오는 날』, 『신의 회작』, 『낙서족』, 『유맹』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3;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등 방민호의 일련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밀하게 탐구하지 않은 듯하다. 예컨대 선행연구들은 『낙서죽』 속 어머니 인물들에 대해 가장의 부재를 계기로 공적 영역에 진입했다거나⁷⁾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도현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존재⁸⁾ 정도로 언급한다. 그러나 『낙서죽』 속 어머니들은 그 자산과 기독교적 믿음을 기반으로 박도현의 행로 및 『낙서죽』의 서사를 강력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나의 인간상은 부모도 형제도 고향도 집도 나라도 돈도 생일도 없는, 완전한 영양실조에 걸린 ‘육신과 정신의 고아’였다”⁹⁾는 손창섭의 반복된 고백이 『낙서죽』 속 ‘혁명가 아버지’라는 허구적 존재를 역설적으로 부각시켰다면, 작가의 경제적·정신적 곤궁이라는 이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산가 어머니’라는 존재 또한 같은 무게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낙서죽』의 역사적 참조점과 핵심적인 허구 설정을 살펴보는 일은, 크게는 해방 이전의 세계를 손창섭이 어떻게 재구성했는가에 대한 탐구이지만 작게는 왜 『낙서죽』은 1938년을 배경으로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기도 하다. 1950년대에 발표된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전후라는 동시대 현실을 배경으로 삼은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그의 첫 장편 소설이 별안간 과거로 향했다는 것, 동시에 그 과거가 막연히 한국전쟁 이전이나 해방 이전이 아니라 ‘1938년’이라는 약간은 낯설고도 명확한 해라는 것은 연유가 있어 보인다. 손창섭이 처음으로 장편소설이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되돌아본 1938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 시대로부터 어떤 의미를 길어오기 위해 때로는 실제 역사를 반영하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왜곡했는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물음들을 따라간다.

7) 박죽심, 앞의 글, 353면.

8) 김명임, 앞의 글, 257면.

9) 손창섭, 「나의 자전적 소설론 - 아마추어 작가의 변」, 송하춘 편, 『작가론총서18 손창섭』, 새미, 2003, 312면에서 재인용.

2. 1930년대 말 운동가 아버지'들과 미분화된 이상

『낙서죽』의 주인공 박도현(1919년 혹은 1920년생)이 작가 손창섭(1922년생)과 유사하게 3.1운동 직후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종종 주목되었다. 그런데 박도현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데 좀 더 중요한 정보는 그가 3.1운동 시기에 태어난 세대라는 점보다는 3.1운동에 참여한 세대의 자식이라는 점일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운동에 참여한 부모의 자식들의 서사는 운동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는 후일담과는 다르다. 자기 자신과 운동이라는 양자 관계가 아닌 나—부모—운동이라는 다자 관계에서 각 항의 의미는 서로의 영향을 받아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운동가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 공사(公私)가 혼합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식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각각에서 부모의 행위가 가진 의미를 소화해가게 된다.

3.1운동 세대의 자식들이 한국문학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부터로 보인다. 비교적 친근한 예는 염상섭의 『삼대』(1931) 속 흥경에 일 것이고, 조용만의 「방황」(1931)이나 송순일의 「나와 순탄」(1931), 이태준의 「불도 나지 않았소」(1931) 등에도 3.1운동가의 아들딸이 등장한다. 『낙서죽』에 대한 논의에 앞서 잠시 그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보자.

조용만의 「방황」에서는 화자 Y의 종숙부가 3.1운동을 계기로 해외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러나 결국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출옥 후에는 농사만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듬해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 먹고 살 방도가 마땅치 않았던 종숙부의 가족들은 몇 해를 건디다 화자 Y의 집을 찾아왔으나 Y의 가족들은 그들을 못마땅해할 뿐이다.¹⁰⁾ 송순일의 「나와 순탄」의 경우도 유사하다. 화자 '나'의 아버지는 본래 사립학교 교장직을 명예퇴직하고 양화점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

10) 조용만, 「방황」, 『동아일보』, 1931.8.28.~9.2.

나 3.1운동에 가담해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자 학교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고 빗 때문에 양화점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 일로 ‘나’의 가족들은 친지들에게 외면당한다.¹¹⁾ 이태준의 「불도 나지 않았소」에는 더욱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초점의 대상인 ‘여자’는 그 부친이 3.1운동 때 대동단에 끼어 조선을 떠난 이래로 모친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공장노동을 하거나 결혼을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 상황을 비판한 모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¹²⁾

한편 3.1운동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운동’과 ‘가족’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으로서 유진오의 「형」(1931)도 더불어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사회운동에의 투신을 이해하고 서로 공명하는 아버지와 형,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계의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원망과 질투를 느끼는 동생이 등장한다. 시기상 형이 가담했던 사건이 3.1운동일 수는 없고 사회주의운동일 가능성이 크지만, 형이 존경하는 대상이자 농군임에도 책을 들여다보는 부친의 숨겨진 이력도 중요할 수 있다.¹³⁾

이상의 1930년대 초반의 작품들에서 부모 세대의 3.1운동이 의미화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운동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의 현재가 가난하거나 위협해졌다는 상황 및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방황」과 「나와 순탄」, 「형」을 함께 놓고 보면 모두 운동 대 가정의 구도 속에서 운동의 가치를 우선시하다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노동과 희생을 강요하게 된 점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타난다. 둘째, 부모의 운동은 계급 운동을 위시한 새로운 세대의 운동을 통한 계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형」의 형과 「방황」의 박경혜(묘사), 「나와 순탄」의 순탄은 기성세대의 운동이 그 한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인식 위에서 계급 운동을

11) 송순일, 「나와 순탄」, 『조선일보』, 1931.8.23.~9.17.

12) 이태준, 「불도 나지 않았소」, 『동광』 23, 1931.7.

13) 유진오, 「형」, 『조선지광』 94~96, 1931.1~5.

통해 다음 단계로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인다¹⁴⁾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반응, 즉 비판의식과 계승의식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기성세대의 운동이 시기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낙서죽』의 박도현도 부친이 3.1운동 시기 중국으로 망명한 이래 모친과 단둘이 궁핍하고 부자유한 삶을 살아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낙서죽』이 3.1운동 세대를 보는 시선은 위 작품들과는 사뭇 다르다. 『낙서죽』에서는 부친이 시도한 운동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삶이 경제적·정치적으로 곤란해졌다는 인식이 없고, 기성의 운동이 세대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변화했다는 인식도 없다. 왜일까? 물론 1930년대 초반에 3.1운동을 의미화함에 있어 현재의 가난이 크게 부각된 것은 이 시기의 경제 대공황의 여파이기도 했다. 「방황」이나 「나와 순탄」을 비롯한 이 시기의 많은 작품이 “불경기”¹⁵⁾를 언급한다. 그러나 『낙서죽』의 시기적 배경인 1938년 역시 중일전쟁으로 말미암아 물가의 폭등이 큰 사회문제로 불거졌던 시기였고, 박도현의 가난 또한 심각한 편이었다.¹⁶⁾

14) 3.1운동의 동력이 이후 계급운동으로 이월되었다는 점은 권보드래(2015)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권보드래,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 - 식민지시기 후일담 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250면.

15) 조용만, 「방황(2회)」, 『동아일보』, 1931.8.29.; 송순일, 「나와 순탄(11회)」, 『조선일보』, 1931.9.5.

16)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1938년의 물가 폭등의 문제는 당시의 신문 논설들에서 이미 분석되고 있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에서나 조선에서나 생필품의 가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군수 식량 및 물자의 조달이 최우선시되면서 전반적인 일반 생활품이 부족해졌고(「물가 폭등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8.4.2.), 전쟁기의 극심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수출입을 제한하자 면화나 목재 등 수입이 제한된 생필품의 가격이 더욱 폭등하게 되었다(「수입의 제한과 금지가 가정에 주는 영향」, 『동아일보』, 1937.10.14.). 여기에 일부 상인이나 부유층에서 폭리를 노리고 한 매점매석이 상황을 악화시켰다(「횡설수설」, 『동아일보』, 1939.12.20.). 일본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폭리취체령과 공정가격제를 통해 물가를 낮추려고 했으나 이는 실패했다는 판단이 일반적이었다(「물가 폭등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8.4.2.).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전체 시기(1937년~1944년 말)로 따지면 조선의 물가는 2.17배나 증가했다(이송순,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동북아역사재단, 2021,

그런데도 『낙서족』의 3.1운동 자식 세대의 서사가 다른 것은, 한편으로는 운동가 부친이 ‘사망자’나 ‘생활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운동가’로 건재하여 투쟁을 직접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도현의 경제적 문제가 그 자신의 의지적 성격과 더불어 상회 모친의 자금이라는 환상적이다시피 한 소재로 꾸준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낙서족』을 자전적이지 ‘않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설정, 곧 ‘혁명가 아버지’와 ‘자산가(丈)어머니’라는 허구적 존재는 『낙서족』의 서사를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고 여기에서는 전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운동이 실패로 끝나지도, 다른 사상이나 다음 세대로 분화되지도 않았다는 설정은 『낙서족』의 시공간을 의미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작품에서 ‘혁명가 아버지’상이 부친과 숙부 두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박도현의 부친과 숙부가 민족적 당위를 상징하며 도현에게 자부심과 더불어 강한 압박감을 주는 존재임은 빈번히 지적되어왔다. 의아한 점은 왜 부친과 숙부 두 명이 필요했는가이다. 부친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독립운동가 아버지상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손창섭은 굳이 공산주의자 숙부도 등장시켰을까? 『낙서족』에서 부친

332-333면). 높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노동임금은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도 이 시기 조선 민중의 생활난을 짐작하게 한다(「물가양등 일로이나 노동임금 의연저하」, 『동아일보』, 1938.10.23.).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전시생활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인 소비통제 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옥죄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이송순, 위의 글, 318-332면).

한 기사는 전년도 대비 1938년의 생필품 가격 인상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배추 1통 10전(1937년)→20전(1938년), 무 2전 이내→4-5전, 고추 1포대 3원→6-7원, 목화 1근 15-16전→17-18전, 솜 1관 4원50전→6원30전, 광목 6-8원→25-30원, 내복 1벌 2원70전→3원80전, 방한모·방한화 50-60전→1원20-30전, 양말 1타 1원70-80전→2원50-60전, 나무 1단 27-28전→45전, 장작 1관 6전→9전, 숯 1관 1원20전→1원70전, 석탄 1돈 18원→22-23원. 정확한 값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인 물가 인상을 체감할 수 있는 목록이다(「생활용품과 방한구 폭등 또 폭등의 일로」, 『조선일보』, 1938.10.17.). 이와 같은 물가를 감안할 때 박도현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는 다음 장에서 상술한다.

과 숙부는 그들이 호명되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함께 거론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상을 지녔음이 언급되지만 기실 이 작품에서 그 차이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한 집안’ 출신인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혁명투사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

(가) 도현은, 부친은 물론 숙부와도 긴밀한 연락을 맺고 싶었다. 부친이나 숙부는 자기의 행동이 직접 어떤 거대한 의의와 직결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해 줄 것 같았다. (378)

(나) 조모의 서거가 못 견디게 슬프지는 않았다. 다만 눈을 감기 전에 부친과 숙부와 자기 이름을 부르셨다는 대목을 읽을 때만은 코 허리가 시큰 했다. (413)

(다) 아 독립단원이나 공산당원의 핏줄을 받은놈이 순순이 불줄 알아요. (355)

(가)에서 보이듯 박도현에게 부친과 숙부는 동일하게 자극을 주는 존재이며 별개의 노선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다)에서 보듯 ‘부친(독립단원)-숙부(공산당원)-박도현’을 하나의 계보로 여기는 것은 그들의 가족 내부(조모)에서나 외부(일본 경찰)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손창섭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공산주의자 숙부라는 인물을 만들고 민족주의자 부친과 동등하게 호명되도록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38년을 민족 내부의 분열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시기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이 사실이 의미 있는 이유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손쉬운 협력이 손창섭의 다른 작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손창섭이 1950년대에 발표한 작품들에서 공산주의(자)는 결코 호의적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사연기」(1953)에서 동식의 부친은 지주라는 이유로 좌익 청년들

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생활적」(1954)의 동주도 동지들이 인민군 포로들에게 맞아 죽었던 반공포로수용소의 기억에 시달리며, 「혈서」(1955)의 준석은 한국전쟁 때 중공군에 의해 한 다리를 잃었다. 「육체추」(1961)에서는 인민군이 이용 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모두 죽인다는 소문이 장애인 인물들을 두렵게 한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육이오때 그 품속북한산-인용재 깊이 숨었다가 적구(赤狗)에게 발각되어 죽을 뻔했던 인연”¹⁷⁾이 있었던 손창섭 개인의 경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낙서족』에서 숙부로 대면되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다분히 목적의식적인 것이다.

실제 작가의 행적과 달리 박도현이 만주에 가보지 못한 것으로 설정된 것도 1938년이 의미하는 ‘마지막 이상’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손창섭은 1935년 만주로 건너가 일 년 정도 머무르다가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박도현은 일본으로 가기 전 두 차례 월만(越滿)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가 작가와 마찬가지로 만주 생활을 해보았다면 「광야」(1956)에 등장한 것과 같은 만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을 수 있다. 「광야」는 장자위푸(姜家窩堡)의 조선인 아편 밀매상을 중심으로 만주의 풍경을 그려내는데, 여기에서의 만주는 매우 불결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형상화되며 때때로 마적이 재산을 약탈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손창섭이 만주와 일본에서 전전했던 직업 가운데 “아편 도매상 급사”¹⁸⁾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광야」에 묘사된 만주의 모습은 그의 경험을 일정 부분 반영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낙서족』의 도현은 이러한 만주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단=미국깡단=마적단’이라는, 표면적 이미지만으로 빈약하게 묶인 등식이 여전히 성립되고,¹⁹⁾ 만주·상해·연

17) 손창섭, 「생명의 육구에서」, 『경향신문』, 1956.6.28.

18) 손창섭, 「나의 작가수업」, 『현대문학』, 1955.9. 「생활적」(1954)의 봉수 또한 해방 전 만주에서 아편 장사를 했던 인물이다.

19) “도현과 약국집 아들은 신이 나서 그 독립단원 얘기를 하다가 미국의 깡단 얘기로 만주의 마

안의 구분이 중요치 않으며, 그저 “부친과 숙부가 활동 근거지로 삼고 있는 중국”(437)으로서 중국 전체를 이상화하게 된다.

박도현의 부친과 숙부가 갈등 없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설정과 더불어, 이승만과 김구가 반복적으로 함께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주에서 활약중인 「이 승만」 박사 와 중국에 망명 중인 「김구」 선생”(409)에 대한 과장 섞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곤 한다. 『낙서죽』이 1959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왜 1938년을 배경으로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인 발화를 굳이 여러 차례 제시했을까 의문을 던지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승만과 김구가 긍정적인 의미값을 나누어 갖는 것은 엉뚱한 설정만은 아니다. 1930년대 말~1940년대 초는 1925년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던 이승만이 오랜 단절 끝에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김구는 1930년대 후반 이래 중국 관내만이 아닌 해외 한인 전체의 대동단결이 이루어져야 독립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임시정부는 미주 한인 단체의 통일을 중시했다. 이는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하기 전까지 1930년대 내내 중국 각지를 떠돌아다녀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미주 한인들에게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의지를 해 온 만큼,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다.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 마침내 1941년 재미 한인들은 해외한족대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이승만이 주미외교위원장부 위원장으로 추천되고 임시정부가 이를 인준하면서 부터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관계는 복원된다. 해방 이후와 대조적으로 이 시기의 이승만과 김구의 연대는 매우 공고했다. 태평양전쟁기의 한일계 릴라부대 창설 계획은 김구와 이승만의 공고한 협력체제와 상호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며, 해방 직전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 과

적단 얘기로 화제는 한정 없이 번지어 나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도현의 머릿 한 구석에는 할아버지 산소에서 꼭 한번 만나본 일이 있는 농군으로 가장한 부친의 모습이 줄곧 떠돌고 있었다.”(372)

동이 있을 때도 김구는 이승만을 확고히 지지했다.²⁰⁾

태평양전쟁, 해방과 단독정부 수립,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이후의 역사에서 이승만과 김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더 이상 ‘한 집안’일 수 없게 됨을 1959년 『낙서족』의 독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낙서족』의 1938년은 이 모든 세력의 마지막 화합이 가능했던 시기로 형상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직은 조선이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남한이 되기 이전, 서로 다른 사상 간의 관계가 폭력이 아닌 연대였던, 어찌 보면 지극히 이상주의적으로 미분화된 시공간을 구성해낸 것이다. ‘빛나는 아버지들’의 이러한 미분화된 상태는 박도현의 의식세계가 그만큼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낙서족』에는 이러한 세계관과 별도로 작동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박도현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인 ‘어머니들의 세계’가 그것으로,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알아본다.

3. 1930년대 말 자본-이성-기독교라는 숨겨진 동력과 배후의 어머니들

『낙서족』에서 ‘부재함으로써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존재’는 그간 많이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부친과 숙부의 그 이끄는 것은 기실 박도현의 의식세계 속에서 그가 소망하는 바일 뿐, 실질적으로 그를 이끄는 존재는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박도현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인물은 친모만이 아니라 상희의 모친과 상희도 해당된다. 도현의 모친과 상희의 모친은 “두분 모

20) 정병준, 「태평양전쟁기 이승만 - 중경임시정부의 관계와 연대 강화」, 『한국사연구』 137, 한국사연구회, 2007.

친님의 희망”(405), “모친님들이 원하고 계시듯이”(407), “상희의 모친과 도현의 모친은 연명으로서”(441)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더 정확히는 ‘도현을’ 움직이는—인물들로 그려진다. 그리고 상희는 두 어머니들의 “특명 대사”(396)를 자처함으로써 이들의 뜻을 도현에게 전달, 관철하는 역할을 한다. “선생님의 모친이나 저의 모친의 의향인 동시에 제의 간청”(395)이라는 상희의 대사에서는 상희가 스스로를 두 어머니와 동일한 위치에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고, “모친의 얼굴이 번개 같이 스치고 지나갔다. 상희의 얼굴이 떠올랐다.”(386)와 같은 대목에서는 도현의 입장에서 상희가 어머니와 동일시되는 순간이 포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 인물은 도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저마다의 역할을 맡고 있다. 먼저 도현의 모친은 도현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세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일본인 형사는 도현의 모친이 미국인 선교사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비교적 연락이 자유로운 조선과 상해의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모친과 부친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이에 도현은 어린 시절 딱 한 번 아버지인 줄 모르는 채로 아버지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머니가 7, 8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아버지였음을 알려주었다는 점을 곱씹는다. 존경스러운 아버지를 좇느라 어머니는 다만 평범한 생활자로 여겼을 도현에게 있어, 모친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모친에 대한 의심이 불끈 솟았”고 “부친 이상으로 독한” 인물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기기 묘묘하게 얼크러져 있는 것 같았다”(375)는 도현의 말은 그가 믿고 있던 빈약한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면서 어머니라는 미지의 세력이 얼핏 인식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도현의 모친은 여름방학을 맞아 일본에서 귀국한 상희의 방문을 받으면서부터 상희의 가족과 교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이후로 상희의 모친과 함께 도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상희 모친의 자산은 두 어머니

들의 계획을 현실화하는 기능을 한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 박도현은 본래 몹시 가난했다. 도현의 부친이 1920년대 초 조선을 떠난 이래로 도현은 오직 모친의 노동으로 양육되었을 것이다. 도현이 일본으로 간 이후에도 모친은 “얼마 안되는 수입 중에서 매달 절반을 떼어 도현에게 보내오고 있었”(365)는데, 그 돈은 “불과 십오 원 미만”(362)이었다. 도현 모친의 한 달 월급이 30원가량이었고 두 사람 각각이 15원 정도씩 가지고 생활해갔으리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물가를 고려할 때 이는 몹시 궁핍한 수준이었다. 쌀값을 참고해 말하자면 1937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조선 사람이 가장 많이 먹었던 한백미(韓白米)는 한 가마니에 14원 35전이었는데 이 값은 꾸준히 올라 1939년 6월 1일이 되면 17원 85전이 된다.²¹⁾ 도현과 도현 모친의 한 달 생활비는 쌀 한 가마니도 감당하기 버거운 정도였던 셈이다. 이에 도현은 방학을 맞아 하천공사장의 인부로 일을 하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해결하기도 했다.

“유소시부터 현금에 이르기까지 나의 노력의 대부분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제공되어 왔다”²²⁾는 손창섭의 발언을 염두에 두면 박도현의 궁핍한 집안 형편과 고학은 매우 절실한 데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만큼, 도현의 가난이 상희 모친에 의해 매우 안온하게 해결되는 것은 손창섭의 실현되지 못한 어떤 근원적인 욕망의 흔적으로도 느껴진다. “여장부”(395)로 불리는 상희 모친은 사리원에서 굴지의 포목전을 경영하고 있고 상당한 양의 농토도 소유하고 있다. 상희의 부친 또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1930년대 초반 작품들과 달리 이것이 집안을 몰락시키지 않았고, 여전히 상희 모친이 임시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리에서 존경을 받는다. 상희 모친은 도현을 알게 된 이후로 그의 학비와 생활비, 망명비용까지 일체를 부담한다. 상희의 친오빠 상혁이 받던 ‘한 달 80원’이 도

21) 「자꾸만 오르는 쌀값 까닭은 어데 부터냐」, 『조선일보』, 1939.6.6.

22) 손창섭, 「나의 작가수업」, 『현대문학』, 1955.9.

현에게 대신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도현이 상희 모친의 아들로써 자리하게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이 도현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그대로 좇도록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버지의 길과는 분명히 다른 길로 도현을 인도하고 있다. 도현은 부친이나 숙부와 같은 위대한 혁명 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행동은 대부분 어리석은 것들로서, 학교 선생이든 경찰이든 자신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헤딩으로 ‘민족적 복수’를 한다거나, 천황을 암살하겠다는 목표하에 과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이내마이트를 제작하려고 하는 등이다. 도현의 모친과 상희의 모친, 그리고 상희는 이러한 도현의 몽매한 열기를 부단히 눌러가면서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애쓴다. 그 다른 방향이란 한 마디로 실력양성론이다. “조국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할려면 우선 힘을 길러야 한다 구 생각해요. 그 힘이란 물론, 체력과, 지력과, 조직력과, 재력을 말하는 거”(407)라는 것이다. 도현의 어머니들은 힘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현이 우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 전공은 의학이나 법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계획한다.

낭만적인 투지를 가지고 언제나 아버지들과 같은 무장투쟁론을 지향했던 도현이 어머니들의 실력양성론을 순순히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실 『낙서죽』의 서사는 도현의 무장투쟁론과 어머니들의 실력양성론의 충돌을 따라 전개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소 길지만 아래의 다섯 장면을 통해 도현이 어머니들의 길에 대해 수긍과 거부를 오가다가 결국 포섭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상희는 짜늘해진 표정으로 도현을 딱하게 건너다 보았다. (...) 「
대학교만 무사히 마치구 나면, 그 귀한 목숨을 함부루 내 던지지 않구서

두 얼마든지 하실 일이 계실거예요. 그 때 가서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셔두 늦지 않으실거예요. 아마 고국에 계신 모친님이나 외지에 망명 중이신 부친께서두 도현씨에게 그것을 바라구 계실거예요. 전 그렇게 믿구 있어요! 도현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379-380)

(나) 「제일 목표는 대학교를 졸업하시는 일, 그것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구 나서, 그 때의 국내 형편과 국제 사정을 고료해 가지구 가장 효과적이구 실천성 있는 제 이 목표를 세우시는거예요.」 (...) 앞으로는 놈들이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꼭 참고 견디자고 생각했다. 그것은 새로운 전술임에 틀림 없는 것 같았다. 상희의 부탁이 생각난 것이다. 그러나 도현은 며칠이 못가서 그러한 결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시끄러운 사건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다. (395-397)

(다) 상희의 얼굴색이 담박 변했다. 싸늘한 눈으로 도현을 보았다. 몹시 딱한 표정이었다. 「투쟁 방법이 서툴렀군요. 그건 결국 무모한 일이에요! 너무 흥분이 앞섰어요!」 상희는 한숨 쉬듯 했다. 상희의 말을 듣고 보니 도현은 새삼스레 자기가 엉뚱한 일을 저지른 것 같았다. (...) 상희와 헤어진 도현은 동지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는 장소로 직행했다. 도현은 비로소 자기가 무슨 구실을 하는 것 같은 장쾌한 흥분을 느끼었다. 그러면서도 일방 상희의 말과 표정을 생각할 때 자신이 반성되기도 했다. (399)

(라)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기서 동지들을 규합해서 비밀결사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구, 경찰서에 불을 지른다든지, 일본 천황을 죽인다든지,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희는 확실히 놀란 표정이었다. 도현은 만족했다. 자기는 드디어 상희를 경탄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 「제 생각엔 암만해도 그건 무모한 일만 같어요. (...) 가장 성공률이 높은 길을 택하셔야 하실게구,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도한 계획 밑에 인내와 노력과 수양의 과정을 거치셔야 할거예요.」 (...) 「상희 씨

가 말씀하신 투쟁방법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적극적인 행동하구, 소극적인 행동하구, 두가지 중에서 말입니다. 전 결국 적극적인 행동을 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두구 보십쇼. 전 기어쿠 한번 해 보구야 말립니다. 시시하게 살다 죽다니 말이 됩니까!」 도현은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리듯 했다. 상희의 진의를 분석해 볼만한 섬세한 신경이 그에게 있을리 없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야수와 같은 투지뿐이었다. (406-408)

(마) 상희는 만날 때마다 도현의 무모한 계획을 반복시키려고 무척 애썼다. (...) 「누가 가만하구 계시랬어요. 좀 더 보람 있는 최상의 투쟁 방법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있어요! 있구 말구요!」 상희는 자신 있게 대답해 놓고 나서 또 중국으로 탈출할 것을 도현에게 권했다. 수다한 우국 지사와 구국 투사들의 활동 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건너가 가지고 그 곳에 망명 중인 인물들과 합세하여 즉시 새로운 투쟁에 적극 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원대한 포부를 안고 미국으로 건너 가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무모한 테로를 저질러 놓고 아깝게 희생 되는 것 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조국을 위해 보람 있게 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코스임을 역설한 것이다. (...) 이 말은 과연 효과적이었다. 당장 어떤 폭발적인 행동에만 미쳐 날 뛰던 그들도 새로운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436-437)

(가)~(마)는 각각 도현이 부친과 숙부에게 연락을 취해 지시를 받겠다고 했을 때, 상희 모친이 도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필재의 퇴학 사건과 관련해 도현도 학교를 나왔을 때, 도현이 유치장에 20여 일을 잡혀 있다가 나왔을 때, 도현과 친구들이 다이어나이트를 제작해 투쟁하겠다고 할 때의 장면이다. 각 대목마다 상희는 학업을 마치고 국제 정세를 살피며 때를 기다렸다가 철저한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설파한다. 상희가 냉정한 태도로 도현의 계획이나 행동을 비판하면 도현은 일단 수긍한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나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면—설령 그 사건이 독립운동과 전혀 무관할지라도—도현은 다시 ‘민족적 의분’에 차 본래의 과격한 행동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은 작품 내내 이어지다가 결말에서 마침내 상희는 도현의 테러 계획을 꺾고 그를 중국으로 보내는 데 성공한다. 결말에서 어머니들의 결정에 따라 도현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들의 땅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설정된 것은 『낙서족』에서 박도현을 인도하는 세력이 기실 아버지들이 아닌 어머니들이었음을 환기하며 서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현의 목적지가 아버지들이 있는 중국이 아닌 어머니들의 영역 미국이라는 점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박도현과 친구들에게 미국은 “자유 천지인 미국”(437), “자유와 황금의 나라 미국”(437)으로 인식된다. 여기에서의 자유란 “얼마든지 안심하고 마음껏 조국의 장래를 논의하고 계획을 짜고 또 활동할수도 있는”(437) 공간의 자유이다. 박도현이 그간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수차례 거처를 옮겨야 했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공중화장실조차 “비록 구린내 나고 웅색할지라도, 요만한 방으로서 완전히 자유를 보장해 주는 세계가 있다면 도현은 평생을 그속에 갇히어 지내고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았다”(411)며 긍정했음을 떠올려보면 미국이 상징하는 자유의 공간은 도현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인물들의 이러한 인식 태도는 중국을 이상적인 민족 단결의 땅으로 상상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중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미국인 선교사의 존재를 통해 그 긍정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상희의 모친은 상해에 도착하면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미국인 선교사를 찾아가라고 주소를 적어준다. 이 미국인 선교사는 “한 때 조선에도 오래 와 있던 선교사”(439)로서, 과거 상희 모친이 “상해에 있는 잘 아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임시 정부에도

돈을 보”(406)냈다고 할 때 언급된 선교사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상희 자신도 미국인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갈 예정”(437)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미국인 선교사(들)는 조선의 청년들이 미국으로 가는 일도 돕고 있었다.

실제 조선의 독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 선교사들의 역사를 볼 때 상희 모친과 가깝다는 미국인 선교사는 영똥하게 설정된 인물은 아니다. 식민지기 동아시아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 가운데는 친일적인 인물들도 존재했지만 반대로 조선과 중국의 항일투쟁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이들도 많았다. 이들 가운데 특히나 피치(Fitch) 가문은 상해에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를 돕고 조선인 청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낙서족』에 그려진 미국인 선교사의 형상과 겹친다. 피치 가문은 아버지인 조지 필드 피치(George Field Fitch), 아들 조지 애쉬모어 피치(George Ashmore Fitch), 애쉬모어의 부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ownsend Fitch)가 대를 이어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이들은 중국 상해의 YMCA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면서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인들과 접촉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안창호의 명의로 대한적십자회 설립이 재건되자 아버지 조지 필드 피치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때부터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된다. 아들 조지 애쉬모어 피치 또한 아버지의 활동을 계기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다. 특히 그는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에 김구 일행을 프랑스 조계에 있던 자신의 자택에 한 달간 숨겨주었다가 상해를 빠져나가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피치 부자(父子)는 상해로 망명해 온 조선인 청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일도 도왔는데, 조선인들을 중국인으로 위장시키고 자신이 타는 미국행 배에 동승시켰다고 한다. 한편 애쉬모어와 그의 아내 제랄딘은 태평양전쟁기에 한미 협회와 한국기독교인친한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두 단체는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미외교위원부의 책임자가 된 이승만이 자신의 외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²³⁾

제랄딘은 당시 이승만의 외교독립정책의 큰 조력자로서 미국과 중국 내 인맥을 이용해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²⁴⁾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미일 관계가 악화되어 조선 내 영미권 선교사들은 적성국 국민, 스파이, 불온분자로 취급되었고²⁵⁾ 일제는 「외국인의 입국 체재 및 퇴거령」(1939.11) 및 「한국 기독교도 불온분자 검거령」(1940.9)을 공포하여 이들을 탄압했다.²⁶⁾ 이를 고려하면 『낙서족』에서 일 본인 형사가 “넓은 만주와 지나땅에두 구석구석 까지 미국 선교사가 침투해 있겠다. 그리구 그들은 어디서나 비교적 자유로운 조건 밑에서 무시무시 연락을 취하구 있단 말이지. (...) 그래 상해에 있는 부친과 모친이 양쪽 선교사를 통해 늘 연락을 취하구 있는 사실을 아 자네가 모른다구 해서 말이 되느냐 말야.”(375)라고 한 것도 단지 위협이 아니라 사실을 짚었을 가능성도 생겨난다.

이처럼 『낙서족』 내의 미국인 선교사의 형상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있고, 이들의 도움은 작중 어머니들이 도현을 인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애초에 도현 모친, 상희 모친, 상희가 단단히 뭉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적 믿음이라는 공통 지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현의 모친은 “위안이 있다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일 뿐”(364)이고, 상희의 모친은 “교회에서는 권사 일을 맡아 보리만큼 독실한 신자”(394)이다. 상희 역시 그의 방에 “경대 앞에는 가죽 뚜껑을 한 성경책이 한 권. 책상 뒷 벽에는 예수의 사진이 붙어 있”(363)으며, “도현이 도교를 떠나기 전날 상

23) 이상 피치 가문의 조선독립운동 지원에 대해서는 김주성, 「미국 선교사 Fitch 일가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참조.

24) 자세한 내용은 박명수, 「태평양전쟁 시기의 이승만의 대미 외교활동에 미친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51, 한국교회사학회, 2018.

25) 김승태, 「태평양전쟁기 미국 선교사와 그 자녀들의 대일전 참여 - 미북장로회 내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41면.

26) 도면희, 「한국 독립운동과 외국인 독립유공자」, 『인문논총』 77(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32면.

회는 자기가 애독하던 성경책을 도현에게”(439) 줌으로써 도현의 앞날에 대한 마지막 기도를 해준다. 이때, 『낙서족』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사심 없이 투명한 조력자로서 긍정적으로 그려진 것은 작가의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시선에서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불가침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손창섭의 1950년대 작품들에서 미국의 대변자가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닌 ‘미군’이 되었을 때는 미국(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시선도 나타나지 않았다. 손창섭은 민족주의, 독립운동, 조선, 가족, 사회제도, 국가 등 기성의 거대담론 내지 가치를 전복하고 회화화하는 데 주저함이 없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의외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종교와 자본의 결합은 부당한 권력을 만들어내기 십상이고, 작중 어머니들이 제시하는 실력양성의 길은 ‘암전히 공부나 하라’는 일본 경찰의 발언과 일면 겹쳐진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²⁷⁾ 그러나 손창섭은 『낙서족』에서 이러한 부정적 가능성의 흔적은 전혀 남기지 않는다. 마치 「비오는 날」의 동욱에게 찬양대를 지도했던 기억과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이 그에게 돌아갈 수 없는 낙원이자 마지막으로 남겨둔 영역이었듯이, 『낙서족』에서 기독교의 세계는 도현에게 혹은 손창섭에게 쉽게 훼손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보인다.²⁸⁾

이상(理想)의 미분화와 그에 따른 민족의 단결이 가능했던 시기로서의 1938년이 『낙서족』의 전면에 드러나 있다면, 그 이면에서는 자본, 이성, 기독교적 믿음의 결합이 도현의 일상적 시간을 무탈하게 흘러가게 하고 그의 행로를 조정해간다. 맹목적으로 아버지들을 좇던 박도현은 어머니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더 큰 외부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부단한 거부와 수궁을 거쳐 마침내 작품의 결말에서 어머니들의 계획을 따른다. 기존의 『낙서족』 연구에서 떠난 아버지의 자리를 채

27) 이러한 점은 우현주(2009), 김주리(2019) 등에서 지적된다.

28) 손창섭과 기독교의 관계는 많이 연구된 바가 없으나 최근 김진기의 논문(앞의 글, 2022)이 제출되었다.

우는 남은 어머니와의 관계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친화적 자산가형 어머니는 혁명가형 아버지라는 존재만큼이나 『낙서죽』 독해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두 세계는 각각 당대 역사와 접촉점을 가지면서 『낙서죽』의 1938년이라는 시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4. 1930년대 말 소년기의 끝과 불가능한 여행의 시작

지금까지 보았듯 『낙서죽』 서사의 큰 틀은 아버지-무장투쟁-중국으로의 길을 좇으려 하는 박도현이 어머니-실력양성-미국으로의 길로 인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른다고 박도현 스스로가 믿는 ‘박도현’이나, 어머니들이 이끌어주고자 하는 ‘박도현’이나 모두 ‘독립투사의 아들 박도현’을 가리키지만, 실제 박도현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박도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그것이다. 도현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시선이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는 일본에 있으면서 오직 주변의 또래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의미화하고 있다. 박도현이 ‘독립투사의 아들’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부여하는 명목과, 그 행동 자체가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것이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낙서죽』에서 1938년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생겨나는바, 그것은 곧 중심인물들의 소년기의 끝이라는 것이다. 『낙서죽』은 10대 소년소녀들의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놈들은 확실히 행어나 하고 자기를 건드려 보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찰은 빈 껍데긴 줄 뻗히 알면서도 혹시나 무슨 알맹이가 나오지나 않을까 해서 심심하면 뜯들거 보는 판이다. (...) 도현은 우선 자기가 유 가치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빈 꺾테기에 알맹이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알맹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눈부신 「행동」이다. 대 사회적인 행동. 대 국가적인 행동. 도현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378)

일본에 온 뒤로 박도현이 보인 행동은 ‘독립운동 놀이’라고 불릴 만한 우스꽝스러운 것들이었다. 도현을 요주의 인물로 만든 은행 협박 사건조차 사실은 장난 전화를 건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천황 테러라는 지극히 까다로운 과제를 수행하려 할 때도 도현은 “이상하게도 (...) 그 일의 성패에 대해서는 머리를 쓰지 않”은 채 “어린애 처럼 그저 목적 그 자체에만 열중”(435)한다. 위 인용문에서 보이듯 도현은 자신이 ‘독립투사의 아들 박도현’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 해결책을 잘못 짚고 있다. 그는 ‘행동’을 통해 대의에 걸맞은 구체성을 마련해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외치는 ‘행동’이야말로 지극히 관념적이라는 점에서 도리어 그의 내면을 더욱 비어있게 만든다. 이 점을 알지 못하는 그는 자신의 평범하거나 혹은 심지어 폭력적인 행위를 ‘독립운동의 전(前)단계’로 잘못 의미화하게 된다.

문제는 광욱을 비롯해 도현을 추종하는 10대 소년들이 도현의 언어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것이 다시 도현 스스로의 믿음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도현이 행준의 집을 나와 공중화장실에서 지내게 된 것은 행준이 상회를 강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나, 도현은 이를 “당국의 눈이 시끄러워 비밀 처소에 숨어 지낸다”(412)고 설명한다. 광욱 등은 이를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감격한다. 이보다 더욱 핵심적인 일화는 노리코에 대한 성폭력을 “민족적인 복수심의 폭발에서 뿔어진 기이한 관계”(429)로 설명하는 도현의 태도와 그에 대한 광욱 등의 무비판적 동조일 것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통해 성인 남성의 세계로 진입하겠다는 익숙한 사고방식의 작동이기도 할 것인데, 노리코를 상대로 한 이러한 폭력은 결국 도현의 행위와 명목 사이의 괴리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

하고 폭로되도록 만든다. 경찰이 노리코의 강간범으로서의 도현을 좇고 있을 때, 사정을 알지 못하는 광욱은 “형 조심해야겠어. 경찰에서두 형을 아주 거물루 보는 모양이!”(420)라며 그를 ‘거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위대한 독립 투사의 아드님이 이번엔 강간죄로 걸려 들었구나!”(424)라는 형사의 말에 의해 명확하게 정정된다. ‘독립투사의 아들 박도현’이라는 허구적 정체성이 무너지고 ‘강간범 박도현’이라는 실체가 지적되자 “그 말이 찬 물을 끼얹듯 도현을 놀라게 했”(424)음은 물론이다.

이런 박도현을 조금이라도 유의미하게 변화시킨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상희다. 물론 상희 또한 큰 틀에서는 소년기의 세계에 있다. 광욱 등과 마찬가지로 도현의 허황한 웅변에 “감동적인 흥분”(421)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희가 도현을 돕는 이유가 모친의 태도를 맹목적으로 답습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상희는 어머니들과 달리 실제 도현과 접촉하고 있고, 유일하게 도현의 죄를 죄로 보고 있는 인물이다. 박도현의 머릿속에서 상희는 노리코와 곧잘 대조되나,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층위에서 상희는 기실 그의 부친과 대조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부풀려놓는, 껍데기만 커져 그 속이 점점 더 비게 되는 박도현의 내면을 다시 깨뜨리고 놀려주는 존재가 상희이기 때문이다.

(가) 하필이면 왜 그런 엉뚱한 복수를 하시는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인간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권리는 도현씨에겐 없으셔요. 복수란 오직 악마에게 대해서만 허락되는 최후 수단예요. 순진하고 무력한 한 여자를 유린하는게 어째서 명분 있는 복수예요? (434)

(나) 도현은 가책을 느끼었다. 상희의 싸늘한 모습이 눈 앞에 다가왔다. 마음의 혼란을 의식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도현은 필사적으로 이렇게 항변해 보았다. 「난 복수를 한거다. 난 일본 연놈

을 모주리 짓밟아 주고 싶었던 것이다. 뒤편서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억지였다.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반대였다. / 도현은 자신을 저주했다. (438-439)

(가)에서 상희는 누구도 도현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 곧 도현의 행위는 일본 민족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 아닌 약자에 대한 폭력일 뿐임을 알린다. 그 뒤 도현은 (나)의 장면에서 자신이 내세워온 복수가 변명일 뿐이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자기 인정은 도현으로 하여금 작품의 결말부에서 도쿄를 떠나기 전날 “아무도 모르게 조시가의 묘지를 찾아가 자신을 발견”(439)하도록 만든다. 도현이 노리코의 무덤을 찾아 한 묶음의 헌화를 두는 것은 그가 저질러온 폭력에 대한, 작지만 분명한 사회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박도현이 아버지를 쫓을 때 일어나는 광기·혈기가 형체 없는 복수심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폭력으로 이어졌다면, 실력·이성으로 향하게 만드는 상희는 그러한 폭력에 대해 사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낙서족』은 이처럼 어른 없이 자라나는 10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아버지들을 따라 민족을 위한 투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지만 현실의 엄혹함을 알지 못한 채 낭만적인 치기로만 그것을 대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허무맹랑한 계획이나 행동들이 어머니들의 자산과 외부 협력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결국 그들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모른다. 그들은 다만 자기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의 의미를 만들어나갔다가 다시 부서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1938년, 소년으로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낙서족』에서 한 가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도현과 상희를 포함한 모든 중심인물들이 1938년 이후의 세계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믿음이다.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작품의 말미에서 지금까지의 소년들의 세계를 떠나 외부 현실로 여행을 시작하게 된

다. 그러나 여행의 시작이 곧 작품의 종결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이들의 나이브한 이상과 낭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게 될 것이다. 1938년은 공동의 적을 두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김구와 이승만, 허충민과 중산층이 서로 합심할 수 있던 마지막 시기, 더 정확히는 그렇게 보고 있던 소년들의 열기로 가득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는 이 열기를 지탱해주지 못한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보였던 이승만은 도현의 고향에 등을 질 것이고, 독립투쟁의 땅 중국과 투명한 조력자 미국은 각기 중공군과 미군으로 변모되어 조선에 들어올 것이었다.

손창섭의 작품들에서 전쟁 이후를 살아가는 인물들을 보면 『낙서죽』의 소년들이 이러한 현실을 맞아 어떻게 변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전쟁기 이후 손창섭이 그려내는 많은 주인공들, 「공휴일」(1952)의 도일, 「사연기」(1953)의 동식, 「생활적」(1954)의 동주, 「혈서」(1955)의 달수, 「피해자」(1955)의 병준, 「미해결의 장」(1955)의 지상 등은 모두 지극히 무력하고 권태로우며 삶에 대한 의욕을 징그럽게 여기는 인물들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빠근한 상태이고, 이 피로를 이겨내려는 헛수고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음 이후까지 계속될 것만 같이 느껴진다. 이러한 인물들은 『낙서죽』의 의욕적인 소년들과 매우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같은 인물들의 서로 다른 시절일 수도 있다. 1938년 이후의 박도현을 상상할 때 가장 가깝게 참고 가능한 인물은 아마도 「광야」의 동오일 것이다. 동오는 반일 동지들과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상해를 찾았으나 일본 관헌에 붙들려 실패했다고 말해진다. 동오는 박도현보다는 성숙해진 인물이고, 승두와 같은 주변 조선 청년에게 여전히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말끝마다 중국인을 무기력하고 둔감한 민족이라고 통배”²⁹⁾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연대어의 이상을 상실한 데다가 “모든 것은 시간이 결론을 지어 줄 것”³⁰⁾이라고 체념하는 인물로 변모해 있다.

29) 손창섭, 「광야」, 『한국소설문학대계』 30, 동아출판사, 1995, 237면.

30) 손창섭, 위의 글, 239면.

1938년 이후는 더 이상 박도현과 같은 혈기왕성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세계가 되어 버렸다는 것, 뒤집어 말하면 『낙서족』의 1938년은 손창섭의 문학이 잃어버린 채로 출발했었던 생에 대한 어리석은 의욕이 가능했던 시기였던 것이다.³¹⁾

5. 나가며

손창섭의 『낙서족』은 그간 강력한 법과 질서의 세계를 상징하는 독립운동가 아버지상과, 그런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면서도 실제로는 황당무계한 독립운동 ‘놀이’만을 행하는 미숙한 주인공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왔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위선적인 것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손창섭의 특유한 세계관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창섭을 비롯한 전후세대 전반의 특성으로서 역사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그에 따른 내면의 부재가 논의되기도 했다. ‘독립투사와 그 아들’이라는 요소는 『낙서족』의 전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낙서족』에 대한 독해가 이를 거점으로 축적되어 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는 부자 관계라는 요소와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낙서족』에 배치되어 서사를 전개시키고 있는 다른 요소들을 충분히 조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었다.

『낙서족』에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인물이 왜 두 명이나 필요했는가부터

31) 물론, 손창섭이 『낙서족』을 통해 1950년대 소설 속 주인공들의 소년기를 보여주었다고 독해하는 것이 그의 문학이 자기완결적으로 닫혔다는 의미는 아니다. 1960년대 이후에도 손창섭의 문학은 큰 폭의 변화와 함께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전후 현실을 다루던 작가가 처음으로 되돌아본 과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낙서족』을 1950년대 소설과의 관계 속에서 읽는 데 집중했지만, 그의 문학 전반으로 시야를 넓힐 때 『낙서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짚어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박도현의 민족주의자 부친과 공산주의자 숙부는 가족에 의해서나 일제 경찰에 의해서나 항상 함께 묶여 언급되며 그들의 사상적 차이는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낙서죽』의 세계에서 두 사람은 마찰 없이 결합하면서 강력한 혁명가 아버지상을 빚어낸다. 이는 『낙서죽』을 ‘3.1운동에 참여한 부모의 자식 세대의 서사’로 볼 때 다른 작품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사를 가진 작품에서는 운동가 부모의 존재로 인해 몰락한 남은 가족들의 수난을 그리거나, 또는 그렇게 민족주의운동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계급운동이 그 뒤를 이었다는 시대 분절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낙서죽』에서는 3.1운동이 ‘실패’나 ‘끝’으로 의미화되지 않는다. 박도현의 부친과 숙부는 생활인이나 사망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활약하는 아버지들이기 때문이다.

두 명의 아버지가 상징하는 미분화된 이상은 1938년을 조선 민족이 돌이킬 수 없이 분열되기 이전의 마지막 시기로 바라보게 한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손쉬운 결합이나 공산주의자에 대한 우호적 형상화는 손창섭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손창섭의 실제 행적과 달리 박도현은 만주에 가보지 못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혁명의 땅 중국이라는 환상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 또한 같은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승만과 김구가 『낙서죽』에서 반복적으로 함께 호명된다는 점도 더불어 주목을 요한다. 1959년이라는 작품의 발표 시점을 생각할 때 이승만과 김구를 같은 가치값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눈에 띄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기실 작중 시대적 배경에 충실한 것인데, 1925년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던 이승만이 오랜 단절 끝에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김구와 협력했던 마지막 시기가 1930년대 말이었기 때문이다. 『낙서죽』에서 1938년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승만과 김구가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최후의 시기로, 다시 말해 반공주의가 남한의 정체성으로 굳어지기 전 다양한 이념들이 폭력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접점을 모색하던 시기로 재현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낙서죽』에서 박도현과 아버지들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머니들과의 관계도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낙서죽』의 전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혁명이 아버지들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박도현의 과잉된 자의식이지만, 기실 박도현의 행로를 실제로 좌우하고 그의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배후의 어머니들이다. 이 작품에서 도현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인물에는 친모만이 아니라 상희의 모친과 상희도 포함된다. 빛나는 아버지와 달리 평범한 주부라고만 생각했던 모친이 사실은 아버지와 비밀리에 교류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숨겨왔을 가능성을 깨달으면서 도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외부세계의 존재를 처음으로 자각하게 된다. 한편 상희의 모친은 도현을 알게 되면서부터 도현의 모친과 합심하여 그를 조선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내고자 하며, 상희 모친의 자산이 이를 현실화해준다. 상희는 두 어머니들의 특명 대사를 차치하면서 이들의 뜻을 도현에게 관철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이 도현을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도현이 부친의 죽음을 모른 채 아버지들의 땅 중국이 아닌 어머니들이 지향하는 미국으로 떠날도록 만듦으로써, 아버지들과 같은 무력투쟁이 아닌 실력양성의 길을 걷도록 한다.

미국은 박도현의 의식 속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피상적인 자유의 공간에 불과하지만, 사실 손창섭은 재조선·재중국 미국인 선교사들의 존재를 통해 미국의 이미지를 중국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피치 가문을 비롯한 일부 미국인 선교사들은 당시에 실제로 상해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조선인 청년들을 미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다. 손창섭은 자본, 이성, 기독교적 믿음의 이상적 결합이 가능했던 최후의 시기라는 의미를 1938년에 부여하되 실제 역사적 맥락으로 그것을 뒷받침함으로써 『낙서죽』의 시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 것이다. 전쟁기를 배경으로 하는 손창섭의 다른 작품들에서 미국의 자본이

나 군사력이 결코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낙서죽』에서 이러한 결합의 구심점으로 삼은 것은 미국 자체가 아니라 기독교적 지반일 것이라고도 짐작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낙서죽』의 박도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양자에 부단히 영향을 받으면서도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 또래끼리만 자라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에 주목한다. 도현은 자신이 독립투사의 아들이 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천황 암살과 같은 과격하고도 비현실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메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행위와 명분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갔다. 문제는 박도현 주변의 소년들이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 행위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현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물은 상희이다. 상희는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대리인으로 기능하는 인물이지만, 어머니들과 달리 박도현을 실제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의 죄를 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상희는 독립투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부풀려놓는 박도현의 비대한 내면을 부단히 깨뜨리고 끝내 반성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점에서 박도현의 아버지에 상응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년들의 우여곡절은 결말에서 미국으로의 여행으로 끝맺어진다. 여기에서 1938년이 가지는 마지막 의미가 드러나는바, 엄혹한 현실로 진입함에 따라 벗어나게 되는 소년기의 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독자들은 훌륭한 독립 투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여행이었다. 국가를 위해 서로 다른 이념이 합심하고, 자본이나 종교가 변질되지 않으며, 타민족이 제국이나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조력자로 존재했던 시기는 위태로울 만큼 짧았다. 『낙서죽』의 소년들이 이후 어떻게 변모했을지는 손창섭의 전후문학에 등장하는 지극히 권태로운 인물들을 통해

이미 보아왔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들 소년은 손창섭 문학 속 전형적 인물형의 전사(前史)라고도 할 수 있다. 손창섭은 그의 문학이 출발하기도 전에 상실했던 희망과 이상, 혹은 자기 자신과 한국의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낙서죽』의 1938년에 사후적으로 붙여넣었던 셈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동리, 「〈무명〉에서 〈광명〉으로」, 『사상계』, 1959년 4월호.
 김우중, 「야유의 인생·야유의 문학」, 『사상계』, 1959년 4월호.
 백철, 「『낙서족』의 독후감」, 『사상계』, 1959년 4월호.
 손창섭, 「나의 작가수업」, 『현대문학』, 1955.9.
 손창섭, 「생명의 욕구에서」, 『경향신문』, 1956.6.28.
 손창섭, 「낙서족」, 『사상계』, 1959년 3월호.
 손창섭, 「광야」, 『한국소설문학대계』 30, 동아출판사, 1995.
 손창섭, 「나의 자전적 소설론 - 아마추어 작가의 변」, 송하춘 편, 『작가론총서18 손창섭』, 새미, 2003.
 송순일, 「나와 순탄」, 『조선일보』, 1931.8.23.~9.17.
 유중호, 「인간모멸의 백서」, 『사상계』, 1959년 4월호.
 유진오, 「형」, 『조선지광』 94~96, 1931.1~5.
 이어령, 「잡음」, 『사상계』, 1959년 4월호.
 이태준, 「불도 나지 않았소」, 『동광』 23, 1931.7.
 조용만, 「방황」, 『동아일보』, 1931.8.28.~9.2.

2. 단행본

- 이송순,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동북아역사재단, 2021.

3. 논문

- 강유정, 「손창섭 소설의 자아와 주체연구」,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공종구, 「손창섭 소설의 기원」, 『현대소설연구』 4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권보드레,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 - 식민지시기 후일담 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병인적 요소 - 「생활적」, 「낙서족」, 「신의 희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김승태, 「태평양전쟁기 미국 선교사와 그 자녀들의 대일전 참여 - 미북장로회 내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김주리, 「손창섭 소설 속 의협과 폭력」,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 김주성, 「미국 선교사 Fitch 일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 김진기, 「손창섭 소설의 수치심과 기독교」, 『어문론집』 91, 중앙어문학회, 2022.
- 도면희, 「한국 독립운동과 외국인 독립유공자」, 『인문논총』 77(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 류동규, 「탈민족의 관점에서 본 『낙서족』」,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2007.
- 류동규, 「전후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그 재현」, 『현대소설연구』 4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 박명수, 「태평양전쟁 시기의 이승만의 대미 외교활동에 미친 제달딘 피치(Geraldine T. Fitch)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51, 한국교회사학회, 2018.
- 박죽심, 「손창섭의 자전적 성격의 소설에 나타난 의미 고찰」, 『어문론집』 53, 중앙어문학회, 2013.
-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 방민호, 「손창섭의 자전적 소설 연구 - 『비 오는 날』, 『신의 회작』, 『낙서족』, 『유맹』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3.
-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에 관한 일고찰 - 자전적 소설과 세대론의 관점에서」, 『한국현대문학연구』 13, 한국현대문학회, 2003.
- 양정임, 「손창섭 『落書族』의 ‘껌테기/알맹이’의 상징성 연구」,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2011.
- 우현주, 「재일 디아스포라 인물들의 정체성 연구 - 손창섭의 『낙서족』과 『유맹』을 중심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5,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09.
- 정병준, 「태평양전쟁기 이승만 - 중경임시정부의 관계와 연대 강화」, 『한국사연구』 137, 한국사연구회, 2007.

4. 기타

- 「물가 폭동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8.4.2.
- 「물가양등 일로나 노동임금 의연저하」, 『동아일보』, 1938.10.23.
- 「생활용품과 방한구 폭등 또 폭등의 일로」, 『조선일보』, 1938.10.17.
- 「수입의 제한과 금지가 가정에 주는 영향」, 『동아일보』, 1937.10.14.
- 「자꾸만 오르는 쌀값 까닭은 어데 부텃나」, 『조선일보』, 1939.6.6.
- 「횡설수설」, 『동아일보』, 1939.12.20.

<Abstract>

Revisiting 1938 in Son Chang-sop's *Nakseojok*

Yu, Seohyun

With his first novel, *Nakseojok* (1959), Son Chang-sop turns his attention away from depictions of contemporary post-war Korean society to the past of the late 1930s. This article analyzes *Nakseojok* to explore the meaning Son attaches to this period of time. First, given the prominence of protagonist Bak Do-hyeon's reverence for his father, an independence activist who symbolizes law and order, we should note that this image of the father is composed of an idealistic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elements, from nationalism and socialism to Kim Gu and Syngman Rhee. The undifferentiated ideal symbolized by the revolutionary father represents the late 1930s as the last period when national unity was possible, while also illustrating the immature state of Do-hyeon's consciousness. Next, while previous studies of the novel have focused much less attention on the mother-son relationship than the father-son relationship, the novel's narrative actually follows the process by which Do-hyeon, who seeks to pursue the path of father-armed struggle-China, is instead led onto the path of mother-personal development-USA. While the aggression that Do-hyeon feels toward his father only leads him to commit unnecessary violence against the weak, the novel's mother characters consistently lead him to reflect and adjust his course of action. The theory of personal development in the novel has its foundations in Christianity and capital, which reflects the historical

reality of American missionaries in China, such as the Fitch family, who contributed to Joseon's independence movement. Lastly, *Nakseojok* ends with its youthful male characters departing for the USA through the help of their mothers. This indicates that 1938 also signifies the end of boyhood and entry into a harsh reality. The boys depart with dreams of a bright future for Joseon, but readers have already seen the gloomy future that awaits them in Son Chang-sop's earlier short stories. These young male characters represent the past life of characters in Son's other work who are overwhelmed by ennui. In *Nakseojok*, 1938 is a time when the foolish will to live, which Son Chang-sop's literature had already lost at its outset, was still possible.

Key words: Son Chang-sop, *Nakseojok*, Late 1930s, Joseon Independence Movement, Mother-Son Relationship, Boyhood

투 고 일: 2025년 5월 5일

심 사 일: 2025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6월 13일

수정마감일: 2025년 6월 28일